

제목: 요술램프가 실제로 있었으면 하는 영화 알라딘

나는 영화 알라딘을 보고 자파,알라딘,자스민 중 자파 라는 인물을 골랐다.

‘자파’ 라는 인물의 성격은 자신이 술탄이 되고싶고,욕망이많은 인물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옛날 사막속 신비의 아그라마 에서 좀도둑 인 알라딘이 마술사 자파의 의뢰 로 마법램프를 알라딘이 얻게된다.얻은 후 지니를 만난다.그뒤 자스민에게 마음을 얻으려 갔는데 자파와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얻기위해 싸우는 내용이다.

자파가 술탄이 된후 자스민과 결혼을 할려고 할때 알라딘이 나타나 요술램프를 얻으려고 하는 장면이 인상깊었다.나도 이 장면과 비슷한 나의 경험이 있다.

내가 나보다 1살 어린사촌 동생집에가서 잠을 잘려고 할때 이불과 베게를 가지고 싸웠었던 기억이다. 그 기억은 크고 두꺼운데 시원한 재질로 되어있는 이불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다. 베게는 소시지 베게를 가지고 이건 누나가 가지고 잘꺼임 이라고 하니깐 사촌동생이 이건 내 소시지 베게인데 왜 누나가 배고잠?이라고 하면 내가 손님인데?라고하면서 서로를 잡아먹을 기세로 싸우니깐 결국엔 나와 사촌동생 사이에 소시지베게를 두고 이불은 같이 덮고 잤었던 기억이 있다. 이 기억은 한 1~2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다.요즘에는 같이 TV볼때 서로 볼게 달라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아이스크림 가지고 싸우고,밖에 나가고싶은데 안나가고 싶은 거 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면싸운다.그래도 싸우면 내가 거의 이긴다.가끔씩 사촌들 다만나면 싸움이 여자대 남자로 싸우지만 사촌동생 이랑 둘이있으면 나를 싸우는게 익숙해진다.그래도 어렸을때부터 다른 사촌 들 보다는 나랑 싸우는 사촌 이랑 만나서 둘이 더 친하다.그치만 요즘 사촌동생이 여친이 생겨서 나랑 잘 안논다. 그래서 여친 이랑 특하는거 사진찍어서 내가 헐박 하고 다닌다.그래도 사촌동생이랑 내가 아직 어렸을때가 그리다.나는 내 사촌동생 현우가 귀엽다.내가 중학생 되면 넌 아직 짬민이 라고 놀릴 걸 벌써 생각하고 있다.나한테는 내 사촌동생들 과 사촌친구 중 현우가 특별하게 더 사랑스럽고 더 좋다.

나는 알라딘 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전체적인 소감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 원작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랑 닮아서 재밌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OST들이 너무 좋은 가사들이 많아서 좋았다.나는 영화 가 나온지 얼마 안됐을때 보고 오랜만에 보니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 었 다.나중에 또 볼것이다. 그리고 OST가 너무 좋아서 요즘 다시 듣고 있다.